

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

주 제:	“그분 안에 ”	“연중 제 20 주일 ”	2009년 8월 16일
복음 묵상:	[요한 6,51-58]	[잠언 9,1-6]	[에페 5,15-20]

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일어난 기적의 소녀이며 인간 승리의 대명사, 장애인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와 그녀로 하여금 20 세기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헬렌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앤 셸리반 그리고 실명과 정신병에 시달리던 셸리반에게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노 간호사 로라, 우리 시대에 사랑의 기적을 일구어 내었던 세 여인의 삶과 사랑이 생각합니다.

노 간호사 로라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셸리반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, 48 년간을 헬렌과 함께 했던 셸리반이 없었다면 20 세기 헬렌 켈러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. 사랑의 부메랑으로 기적을 이루었던 세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신앙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.

언제부턴가 저는 노란색의 어린이 집 차들과 유치원 차 그리고 방과 후 쏟아지는 갖가지 학원 차량들을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곤 합니다. 저 차들은 우리 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. 참 사랑의 인간, 참 생명을 전달하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닌 것 같고,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아닌 것 같은데...

부모와 자녀의 관계,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마저도 뒤바꾸고 황폐하게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을 어떤 사회를 꿈꾸기에 저토록 달리고 또 달리는지...

단순히 빵을 더 배불리 먹기 위한 질주라면,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분주함이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가,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 몸부림인가...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리고 마음이 아픕니다.

"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삶이다.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."

살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, 전부를 주십니다. 사랑의 죽음입니다.

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.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얻습니다.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사랑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.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. 더 이상 나의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.

헬렌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셸리반은 <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해요>라고 말했습니다.

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 
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한편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못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. 예수님 사랑의 부메랑으로서...(대구 이창수 신부님 강론)

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

- 강세실리아 자매님, 요세피나 자매님, 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.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- 박 소피아 자매님 8/16-22 까지 Texas 로 출장떠나십니다.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
-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.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.

**알림:**

제 15 차 북가주 성령 대회:

- 8월 22 일(토)오전 8:30-오후 8:30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 천주교회
-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
- 9월 20 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.
-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

51 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.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.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.”

52 그러자 “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?” 하며,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.

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

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,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.

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,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.

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, 내 피는 참된 음료다.

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,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.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,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.

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.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,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.”



♡나로 존재하는 것♡

- 엘리자베스 퀘플러 로스의 《인생수업》 중에서 -



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 
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.  
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,  
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 
평화로워지는  
것을 의미한다.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 
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 
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 
당신만의 여행이다.

\*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.  
아무도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.  
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 
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 
더 평화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요?

오늘의 말씀 사탕:

“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,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.(필리 1.6).”